



글
본 논문 발표자

강지남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은기수_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박태균_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이현재_서울시립대 교수·한국여성학회 부회장
천성현_포스코 기업시민실장
마리나 두라노_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자문관
문현아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딜레니 구네와르데나_스리랑카 페라데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어윤투구스 방즈락츠_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에미코 오치아이_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
문경희_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사진
디자인

주은희
케이트 스몰, 최정미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 리뷰 ①

돌봄은 ‘책임’, ‘공동체’지만 결혼은 ‘족쇄’, ‘가부장제의 산물’

한국 청년 세대의 인식의 키워드... 돌봄 패널티 해소하는 돌봄경제 만들어야

본 센터는 11월 16~17일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을 주최했습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젠더, 국제이주, 개발의 관점에서 돌봄경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17일 컨퍼런스에는 학계 및 기업 리더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고, 첫번째 세션 '젠더, 개발, 청년 세대와 돌봄'을 통해 여러 사회적 층위와 연결해 논의해야 하는 돌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전략으로 다양한 목표 추구하는 돌봄경제

11월 17일 열린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돌팻날 행사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현장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가 동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150여 명이 참석해 젠더, 개발,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돌봄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본 센터가 주최한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선 마리노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자문관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Feminist Foreign Policy) 및 개발 정책(Feminist Development Policy)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공유하고, 돌봄경제가 이에 대한 대안적 시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¹

두라노 자문관은 “돌봄경제는 페미니즘 외교/개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류 경제에 도전하는 돌봄경제가 다양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삶의 질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돌봄경제가 사회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라노 자문관은 돌봄경제가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돌봄경제는 급진적(Care economies are radical)”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 경제학과 교수와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스리랑카와 몽골의 돌봄



마리노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자문관

현실과 돌봄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² 스리랑카와 몽골 모두 돌봄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 무급 노동으로 과하게 쏠려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인데 반해 여성은 49%에 그칩니다. 방즈락츠 교수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불평등을 제거하면 몽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3.2%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가가 돌봄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비율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네와르데나 교수는 “국가의 돌봄 정책이 국가와 시장, 가족, 지역사회로 구성된 ‘돌봄의 다이아몬드’를 강화함으로써 각 부문이 돌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솔루션을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며 “돌봄경제는 스리랑카 경제 성장의 엔진(engine of growth)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¹ 마리노 두라노, '페미니즘적 개발 정책과 돌봄경제: 전망과 제언',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2022년 11월 17일

²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젠더, 개발, 그리고 돌봄경제: 스리랑카의 도전' &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 사회에서 돌봄경제가 갖는 의미',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2022년 11월 17일

한국 청년들의 '결혼' '돌봄' '저출생'에 대한 인식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저출생·고령화 및 돌봄에 대해 가진 솔직한 생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³ 본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인구 안보를 위한 한국형 돌봄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6명의 한국 청년들을 초대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 발표였습니다.

우선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진행한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여성 56%, 남성 43%로 나타났습니다.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여성 65.4%, 남성 48.3%에 달했습니다. ⁴

한일 청년을 비교하자면 두 국가의 청년 모두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성별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을 이행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 성별 분업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1 참조) 저출산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그 자체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실제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중 한 명은 "요즘 사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더 중시하고, 더 이상 가부장적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정부가 출생율에 집착하지 말고 비혼 가족, 1인 가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림1) 전업주부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성별 분업 찬성 여부)

단위: %

| 연도 | 일본 | | | | | |
|-------------|-----------|-----------|-----------|-----------|-----------|-----------|
| | 1989~1993 | 1994~1998 | 1999~2004 | 2005~2009 | 2010~2014 | 2017~2022 |
| 매우 동의한다 | 14 | 17 | 14 | 17 | 15 | 16 |
| 동의한다 | 49 | 59 | 58 | 59 | 52 | 51 |
| 동의하지 않는다 | 11 | 8 | 8 | 6 | 7 | 14 |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2 | 1 | 1 | 0 | 1 | 1 |
| 연도 | 한국 | | | | | |
| | 1989~1993 | 1994~1998 | 1999~2004 | 2005~2009 | 2010~2014 | 2017~2022 |
| 매우 동의한다 | 42 | 31 | 41 | 47 | 9 | 4 |
| 동의한다 | 24 | 57 | 45 | 40 | 38 | 46 |
| 동의하지 않는다 | 18 | 10 | 10 | 13 | 39 | 47 |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15 | 1 | 1 | 1 | 12 | 4 |

자료: World Value Survey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³ 문현아, '청년세대 돌봄의 실태와 전망',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2022년 11월 17일

⁴ 2022년 7월, 19~39세 비혼 남녀 1047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6명의 라운드테이블 참여자는 ‘돌봄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초저출생은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돌봄에 대해 ‘필수’, ‘책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등으로 인식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가부장제의 산물’, ‘족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성평등이 이뤄지고, 동성혼이나 성소수자의 혼인이 가능하고, 비혼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이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드러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출생율에 집착하지 말고 비혼 및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구 공동체를 고려하고 국가 간 이주가 자유로운 환경이 된다면 한국의 저출생이 과연 문제일까’라는 인식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년이 자신의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고 봅니다. 5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돌봄과 관련해 ‘돈이 있어야 돌봄을 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 소득이 지급된다면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간병이나 치매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남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공동체나 돌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정책적 바람도 피력했습니다.

문 책임연구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돌봄과 관련해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한국은 돌봄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1월 1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는 국제이주와 돌봄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이 일본, 호주와 다른 점은?

토론자로 나선 에미코 오치아이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절한 용어와 개념이 성립돼야 우리는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며 “페미니스트 외교/개발 정책과 돌봄경제 등 다양한 용어와 아이디어를 제안해준 두라노의 발표는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치아이 교수는 두 권의 책 『82년생 김지영』과 『엄마됨을 후회함』⁶의 일본판 책 표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림2 참조) 두 표지 모두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여성의 복잡한 심경을 유사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청년들은 남성 81%, 여성 84%가 결혼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청년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오치아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전업주부(housewife)가 다시 중산층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어떤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서 한일 청년들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 시기 일본에서 돌봄 책임의 절반 이상이 여성에게 부과됐던 현실을 지적하며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을 경제에 반영시킴으로써 양성 불



에미코 오치아이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왼쪽)와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림2〉 『82년생 김지영』과 『엄마됨을 후회함』의 일본판 표지

평등과 돌봄 패널티(Care Penalty)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 패널티란 여성이 가정 내 돌봄 책임으로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고, (특히 돌봄 수요가 급증한 코로나 상황에서) 유급 휴가를 얻지 못하거나 일을 그만둠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가정 내 돌봄 책임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가리킵니다.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문 책임연구원의 발표에 매우 공감했다. 특히 세계 꼴지 수준인 한국의 일과 삶 불균형 현실에 눈길이 간다”며 “호주의 한인 이민자 연구를 하면서 한인 청년들에게 호주로 이민한 이유를 물으면 ‘한국에선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목표를 이뤘다고 물으면 ‘매우 흡족하다’고 답한다”고 전했습니다.

⁶ 이스라엘 사회학자 오나 도나스(Orna Donath)의 저서. 원제는 『Regretting Motherhood』



이현재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여성학회 부회장),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왼쪽부터).

돌봄경제 및 돌봄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와 이현재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여성학회 부회장), 그리고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이 환영사 및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 돌봄은 개별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이슈가 됐다”며 “사회 각계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게 돌봄 이슈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가 돌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페미니즘은 개인의 성공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

러한 조건에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돌봄경제는 한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돌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 실장은 “한국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경제적 자립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이 기업에서 활동하고 좋은 성과를 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스코는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이 이슈와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의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등은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